조계종 중앙신도회, 메신저앱 'B톡' 출시

불자네트워크 사업 일환, 전용메신저 및 상품 선보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불자들을 위한 메신저 앱 '비톡' (Btalk)을 출시했다.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는 3월 31일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비톡 사업 업무협약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비톡은 붓다톡(Budda TALK)을 줄인 것으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이다. 텔레그램과 같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안성을 높인 메신저로 불자들이 음성통화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소통하고,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비톡은 정부 공공기관 메신저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솔루션 전문기업인 비드테크(회장 강철순)가 개발했다.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비톡은 수익을 내기 위한 상업성을 가진 시스템이 아닌 불자들의 역량을 모으기 위한 소통의 창구로 기획됐다. 꼭 필요한 시스템임에도 방법이 없었는데 불자기업이 불교발전에 공감, 나서줘 개발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중앙신도회는 3월 31일 불자 메신저앱 '비톡'을 출시하고 교계 언론사들과 활성화 및 홍보 협약을 맺었다.

주 신도회장은 이어 "4월부터 전국 교구본사를 순방하며, 지역 불자들이 비톡을 설치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2022년 50만명, 2023년 200만명의 회원 가입을 목표로 일반인들도 이용하는 메신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현재 비톡의 메신저 서비스 외에도 앞으로 불교 사찰정보를 비롯해 불자장터 등으로 불자기업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불자장터는 개개인이 운영하는 사업, 물품 정보를 올려 비톡 회원들이 검색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된다. 사찰 정보는 전국 25개 교구 및 전국 3000여개 사찰 정보가 사진과 영상 등으로 제공된다.

이날 비톡 런칭과 함께 비톡 회원들을 위한 제휴서비스 혜택도 공개됐다. 비톡에는 한화리조트, IBK기업은행, 전자랜드, 영농조합법인 가가호호 미곡처리장, 제주도 농수축 특산물 온라인 판매처 삼다닷컴, 월드비즈 등이 할인 및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비톡 개발 사업을 맡은 박창범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현재 전국에서 매장 100개 이상을 가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1개 업종 당 1개 업체의 제휴를 목표로 추가 제휴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혜택을 통해 2030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비톡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비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 및 인증절차를 거치면 비톡을 설치한 다른 이용자들이 목록에 보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중앙신도회 측은 "하반기 순방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불자역량 결집을 위한 첫발인 비톡을 설치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자간담회에 앞서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본지를 비롯한 5개 교계 언론과 정보화사업 활성화 캠페인 협조 및 홍보 협약을 맺었다.

불교기후행동, 108배로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

'지구의날' 맞아 불교단체 연대
4월22~23일, 서울·울산 등서
'환경 명상절 108배' 행사 개최
4월 한 달간 ARS 모금 캠페인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발생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 온도가 최근 100년새 1.2℃ 상승했다. 이대로 가면 인간을 포함한 생명 대멸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는 요즘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참회와 서원을 다지는 시민참여 행사를 추진한다. 61개 불교단체와 사찰이 연대한 불교기후행동은 4월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4월 22~23일 서울과 울산, 광주 등지에서 '지구의 날 기도 캠페인-지구는 시원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를 개최한다.

지구의날 당일인 4월 22일에는 12시부터 서울 청계광장과 울산 태화강변에서 '환경명상절 108배' 가 실시된다. 행사는 기도영상과 함께하는 108배 후, 5분 명상으로 진행된다.

4월 23일 오후 3시부터 광주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양일 행사 모두 현장 참여 인원은 스님 50명, 재가불자 50명 등 총 100명으로 제한된다.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하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동참자는 유튜브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불교기후행동 공동대표 일문 스님은 "과도한 에너지와 상품 소비로 인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라고 소개하며 "기후위기를 일으킨 성장, 인간중심 사회에 대한 성찰과 참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교기후행동은 4월 1~30일 한 달 동안 ARS를 통해 환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사랑 모금캠페인' 을 진행한다. 불교기후학교 설립과 교육,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기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사랑 모금캠페인은 후원ARS 060-900-3108(한 통화 3000원)를 통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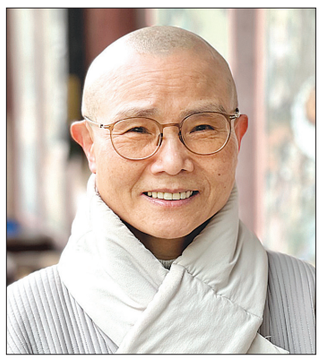
불교기후행동은 지구의날을 불자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전국 사찰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법회 시 지구의 날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법문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신도들을 위한 발원문도 제작된 상태다.

관세음환경사랑 상임대표 법관 스님은 "지구의날 캠페인을 통해 단 하루만이라도 기후위기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010-9656-1654

임은호 기자

"선학원 바로서는 날까지 원력 모아낼 것"

선학원 바로세우기 집회
100일 회향한 심원 스님



재단법인 선학원을 향한 우려의 시각이 깊다. 과거 일제강점기 왜색불교에 맞서 청정승풍을 수호했고, 해방 이후에는 불교정화의 산실로서 역할했던 선학원은, 현재 이사장 성추행 문제와 폐쇄적 재단 운영, 이사회 파행 등 수많은 비판에 직면한 채 과거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더 이상 선학원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원력으로 선학원미래포럼이 지난해 11월 10일 입재한 '선학원 바로세우기 제1차 100일 집회' 가 어느덧 100일을 맞았다. 미래포럼을 대표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임위원 심원 스님<사진>은 매주 평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피켓을 들고 선학원 입구 거리에 섰다. 이로 인해 선학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고충을 겪었으나, 최근 경찰은 스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승복을 입고 피켓을 든다는 것 자체가 승려로서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거기다 경찰조사까지 받으면서, 참 쉽지 않은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스님은 단호한 어조로 신념을 드러냈다. 사실 "선학원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인데 성과도 없는 일에 애쓰지 말라"는 조언이 많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애를 쓰냐"는 질문도 숱하게 들었다.

그러나 스님은 " '때' 라는 것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고 했다. 각고의 노력 뒤에 비로소 주어지는 결실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사장 법진 스님이 여직원 성추행으로 확정판결을 받고도 이사장 임기를 만료한데 이어, 다시 4선 이사장으로 복귀했을 때는 충격도 적지 않았다.

이는 스님이 입법에 관심을 둔 계기이기도 하다. 바로 '법진방지법' 이다. 스님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사장, 그리고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이사회가 재단법인을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지를 보면서 누가 이사장이 되더라도 파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 '법진방지법' 은 예를 들면 성범죄와 같은 파렴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아무리 이사회 전원이 찬성하여 선출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이사나 이사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사실 그보다 쉽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분원장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주장하고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 선학원 구성원들이 창립정신을 잊지 않고 부당한 문제들에 직면해 눈 밝은 시각으로 살펴 바로잡고자 한다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변화는 더디겠지요. 아무리 100일 집회를 수없이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령 개선된 결과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런 노력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때 언젠가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추위가 가시고 봄바람이 불어온다. 심원 스님은 회향 다음 날인 4월 5일 다시 '제2차 선학원 바로세우기 100일 집회' 에 입재한다. 당일 오전 11시 선학원 입구 집회현장에서는 선학원 미래포럼 주최로 '4선 이사장 사퇴 및 법진방지법 제정' 을 촉구하는 입재법회가 열릴 예정이다.

스님은 "집회는 선학원이 바로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사실 100일 집회를 몇 차례 반복해야 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원력을 모아 묵묵히 행하다보면 반드시 변화는 찾아올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송지희 기자



